

협회장 選舉

金正均 · 金顯豐 · 朴祥男씨 출마 선언

齒協의 회장단 선거가 한달여 남은 가운데 최초 회장출마를 선언한 金正均 前 치협부회장 및 金顯豐 치협부회장, 朴祥男 서울지부장등 3명이 회장출마를 공식표명, 3과전의 선거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선거전 초반에 출마를 공식표명한 金正均후보의 러닝메이트로는 全薰植 치협부회장과 李起澤 現치협국제이사가 확정적인 가운데 金正均후보는 「치과계에는 의료법 개정안, 의보문제, 치과인력수급문제, 회관이전문제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는 국민구강보건과 더불어 치과계의 문제는 치과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치협을 만들겠다고 다짐하였다.

金正均후보에 이어 출마한



<김정균>



<김현풍>



<박상남>

金顯豐치협부회장은 25년간 치과계회무에 몸담으면서 익힌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치과계의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이제 치협은 정책단체에서 회원의 권익을 수호하고 실천하는 정책실천단체로 나아가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국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투쟁만이 치과계를 발전시키고 회원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하며 「현치과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때보다도 강력한 투사형의 리더쉽이 필요

한 때」라고 강조하였다.

세번째로 출마를 표명한 朴祥男후보는 「의보제도, 인력수급문제등 불합리한 치과계의 현안들을 쉬운 것부터 차례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싶다고 밝히고 「단순한 공약보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슨일을 하면서 회원에게 희망과 기대감을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며 행동하는 치협, 실천하는 집행부로 만들고 싶다고 출마의 소감을 밝혔다.

서울카톨릭치의회 정기 총회

김기주씨 신임회장 당선

서울카톨릭치과의사회는 최근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김기주씨를 선출하고 집행부 구성을 새롭게 정비했다.

신임 김회장은 매월 조찬모임의 활성화와 서울카톨릭치

과의사회의 목적인 「복음선교, 신자재교육, 빈민무료치료」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회 장 : 김기주
- 부회장 : 윤희철, 김기혁
- 총 무 : 이준규
- 감 사 : 이주봉, 김부곤
- 명예회장 : 기창덕, 조재길, 허만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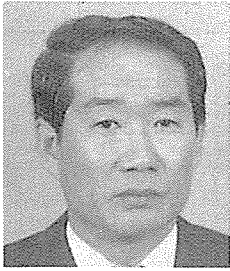
— 계 · 재 · 문 · 의 —

언고 및 광고 게재건은 치협외지대
행기관 도서출판 연대의학사로 문의
마시기 바랍니다.

Tel : 277-8867 · 266-8398

서치 42차 정총

安博씨 신임회장에 당선



〈신임회장 안 박〉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의 제 42차 정기대의원 총회가 지난 13일 63빌딩에서 열려 단독입후보한 안박 現부회장을 선출했으며 9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등을 심의 확정하였다. 이날 열린 정총은 임시의장으로 최재경씨를 선출하고 김일경, 조광현, 조기호 씨등 세명의 후보를 놓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일경씨를

의장으로 차점자인 조광현씨를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1백 13명중 1백 11명이 찬성하는 압도적인 지지로 신임회장에 안박 신임회장을 선출하였으며, 감사로는 김지호, 김계종씨를 선임했다.

일반안심의에 이어 열린 예산안심의에서는 총 3억4천2백 63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株)신흥 주주총회

매출 211억 달성

주식회사 신흥은 28차 정기주주총회를 지난 12일 방배동의 신흥사옥에서 개최했다. 총매출액 211억으로 92년 대비 29%의 신장율을 보인 (주)신흥은 당기 순이익에서는 13.6억원을 달성했다.

대주주에게는 5%, 소액주주에게는 12%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도록 의사결정된 주총에서 李東奎사장은 「현재 경영방침은 제품생산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한걸음 나아가 장기적인 사후관리와 정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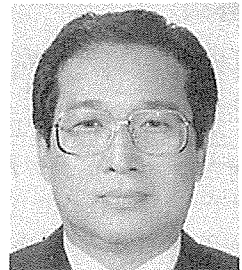
공에 중점을 두는 전국적인 종합 서비스망 구축에 있다」고 밝히며 현재 22개 지방사무소를 확대, 서울지역을 포함

7개사무소를 증설할 계획중에 있다고 말했다.

대한구강병리학회 정기총회 개최

신임회장에 김규문씨

대한구강병리학회는 서울치대 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신임회장에 김규문씨를 선출하였으며 부회장에 김헌일씨와 조재오씨를 선출하는 한편 국제학술교류사업을 활성화 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신임회장 김규문〉

NPG銅합금

“안전성에 논란 많아”

齒協은 구리가 주성분인 NPG 동합금이 치과임상에 사용할 때 구강내부에서 부식 및 변색의 부작용으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NPG 동합금을 치과임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 및 실험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당국에 전달한 바 있으나, 작년 9월 유통금지가 해제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히고 문제가 된 금관 및 계속 가공의치를 수거하여 임상 및 성분분석한 결과보고서와 미국 아바덴트사가 NPG동합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국가들에 대한 사용여부 결과를 보사부에 제출하였다. 한편 미국 아바덴트사가 관계당국에 제출한 자료에는 50여개국에서 NPG 동합금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으나 작년 9월 유통금지 해제조치 이후 치협이 세계 30

여개국에 보낸 공문의 회신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등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NPG 동합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알바덴트사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제42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공고

본 협회 정관 제26조 및 제38조에 의거 제42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1993년 4월 17일 (토) 09:00
 -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홀
 - 목 적 :
- (1) '92 회계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 (2) '93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3) 임원 개선의 건
 - (4) 기타 총회 부의사항

1993년 3월 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정 달 수
대의원총회 의장

신일치과기공소

대표 손 영 수

서울·중구 봉래동1가 83 광풍BD 601호

TEL. 756-2875
756-2876
FAX.773-3949